

이슈브리프 839호
(2026. 5.11)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와 전망

제839호

박병광 bkpark@inss.re.kr



국문초록

5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8년여 만의 방중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무역·기술·안보·중동이라는 4개의 굵직한 의제가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복합적 담판이다. 작년 가을 경주 APEC 정상 회담이 긴장 관리의 공감 형성 단계였다면, 이번 베이징 회담은 경쟁 관리의 실질적 조치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는 무역·관세 문제로 양국은 추가 보복을 자제하는 제한적 '스몰딜'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반도체와 첨단기술 통제 문제이다. 미국은 대중 기술 견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은 추가 제재 억제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는 이란과 중동 문제이다. 미국은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해 호르무즈 해협 불안을 억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에너지 안정을 위해 중동 위기 확산을 원하지 않고 있다. 넷째는 대만 문제로 양국의 핵심 이익과 레드라인이 충돌하는 가장 민감한 안보 의제이다. 다섯째는 중국인 불법체류자와 송환 문제로, 미국 국내 정치와 연계된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제한적 합의(small deal) 도출 여부, 중국의 대이란 중재 역할, 대만 문제 관리 방식, 시진핑 주석의 워싱턴 답방 가능성, 그리고 북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어느 수준까지 오를지 여부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왕이 외교부장의 6년 만의 방북은 중국이 북한의 대미 대화 조건을 사전에 파악해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포석으로 읽히며, 북한 의제가 이면에서라도 실질적으로 논의된다면 이번 회담은 한반도 정세 변화의 간접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양국은 관계 약화의 비용을 인식하고 있어 긴장 완화와 소통 유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반도체·공급망·대만 문제 등 구조적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관계 재설정보다는 전략경쟁 속 충돌을 관리할 최소한의 규칙과 소통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 정상회담의 결과는 관세전쟁, 호르무즈 해협,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긴장 수위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주제어 : 미중 정상회담, 투이불파, 충돌관리, 중동전쟁, 대만문제

5월 14일로 예정된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은 2017년 이후 8년여 만의 방중으로, 상징성만으로도 여느 정상 교류와 차원이 다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역·기술·안보·중동이라는 4개의 굵직한 의제가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모두 충돌의 비용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전략경쟁의 통제 가능성’을 가늠하는 현실적 시험대로 기능할 것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중동 정세의 급격한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단순한 양자 관계 조정의 차원을 넘어, 과거의 정상회담과는 질적으로 다른 함의를 갖는다.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격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이 중국 본토에서 마주하는 첫 번째 자리이다. 특히 당초 3월로 예정되었던 일정이 중동(이란) 정세 등 미국의 대외 안보 상황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후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베이징 정상회담은 2025년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첫 대면 이후 양국 관계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정 국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주 회담이 상호 입장 확인과 긴장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형성 단계였다면, 이번 회담은 경쟁 관리의 규칙과 실질적 조치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현재 미중 관계는 구조적 경쟁이 고착화된 가운데, 경제·기술·안보 전 영역에서 상호 견제가 일상화된 상태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은 관세전쟁과 기술 수출 통제를 중심으로 대중 압박을 이어왔고,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을 전략 카드로 활용하며 맞섰다.

이러한 구조적 경쟁이 고착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베이징을 찾는다는 사실은 여러 층위의 메시지를 담는다. 첫째, 상호 경쟁이 아무리 격화되더라도 양국이 대화와 관리의 틀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둘째, 연초부터 EU의 주요국 정상들이 방중하고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유럽을 비롯한 서방 각국이 중국을 글로벌 리더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한 흐름 속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직접 교섭 채널을 복원함으로써 외교적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셋째, 미중 정상이 직접 마주 앉는다는 행위 자체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국과 직접 딜을 이끌어내는 협상가'라는 국내 정치적 서사를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넷째, 이번 회담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미·중이 '공동 관리자' 역할을 조율하는 시험대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란을 둘러싼 중동 위기가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의 대이란 중재 역할과 미국의 협력 기대가 맞물리며 제한적 공조 가능성이 주목된다.

정상회담의 핵심 예상 의제 5가지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주요 의제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무역·관세 문제이다.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관리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비시장경제와 불공정 경쟁 문제를 이유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양국은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효관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전면적 타협보다는 추가 관세 인상과 보복을 자제하고, 공급망·핵심자원·기술문제를 제한적으로 교환하는 '스몰딜(small deal)' 형태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첨단기술·반도체 문제 역시 핵심 의제이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시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장비 공급 제한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최대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정상회담이 추가 기술 제재를 억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구조적 대중 기술 견제 기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셋째, 중동·이란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외부 변수이다. 미국은 이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는 데 협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해 중동 불안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필요할 경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까지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동 문제는 이번 회담의 핵심 배경 의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대만 문제는 미중 간 ‘핵심 이익’과 ‘레드라인’이 충돌하는 가장 민감한 안보 의제이다. 미국은 대만해협의 안정 유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미중 관계의 최대 리스크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국민당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대만 내부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대만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신뢰 수준과 전략경쟁의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섯째, 이민·불법 체류자 송환 문제도 새로운 갈등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대중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자 제한과 송환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국내 정치와 대중 압박 전략이 결합된 복합적 이슈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의 5대 관전 포인트

이번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양국이 단순한 긴장 관리 수준을 넘어 실질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미중 간 구조적 갈등이 여전히 깊다는 점에서, 전면적 타협보다는 제한적 성격의 ‘스몰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즉, 추가 관세 인상과 보복 조치를 자제하고, 90일 관세 휴전 연장, 희토류 공급 안정화, 일부 공급망 협력과 같은 제한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반도체 수출 통제나 첨단기술 규제처럼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에서는 미국이 의미 있는 양보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이번 회담은 ‘빅딜’보다는 경쟁을 관리하기 위한 제한적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어느 수준까지 실질적 합의가 도출될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이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란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역할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국제 에너지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이란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란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해 중동 불안의 확산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이 이란에 대해 제한적 중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만약 중국의 역할론이 실제 협상 결과에 반영될 경우,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미중 양자 회담을 넘어 중동 정세와 종전 협상의 흐름까지 좌우하는 외교적 분기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대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이다. 미국은 대만 문제를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루비오 국무장관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반면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이자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이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어느 수준의 표현과 메시지 조율에 나설지가 중요하다. 현실적으로는 명시적 합의보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긴장을 관리하는 ‘관리된 모호성(managed ambiguity)’ 형태가 유력하다. 그러나 그 모호성이 어느 쪽의 전략적 입장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지가 향후 대만해협 정세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번째 관전 포인트는 시진핑 주석의 워싱턴 답방 시점과 미중 관계 재설정의 속도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관리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워싱턴에서 시 주석 부부를 위한 답방 행사 개최 가능성도 언급한 상태이다.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경우, 시 주석의 워싱턴 방문 일정 역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후속 정상외교가 빠르게 이어질수록 미중 양국이 전략경쟁을 일정 수준 관리 가능한 틀 안으로 가져가려 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 주석의 답방 여부와 시점은 향후 미중 관계 재설정의 속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다섯 번째 관전 포인트는 북한 문제가 미중 협상의 수면 위로 얼마나 부상할 것인가이다. 이번 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년 만에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면담한 것은 북한의 대미 대화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포석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어느 수준까지 다뤄지느냐는, 향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전망이다. 북한 의제가 회담의 이면에서라도 실질적으로 논의됐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번 베이징 회담은 단순한 미중 양자 담판을 넘어 한반도 정세 변화의 간접적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상회담 전망 : 조심스런 낙관과 구조적 불확실성

이번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의 전망은 한마디로 '조심스러운 낙관과 구조적 불확실성의 공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양국 모두 관계 악화에 따른 부담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관세 인상 유예, 관세 휴전 연장, 경제·통상 워킹그룹 설치, 중동 정세와 관련한 중국의 제한적 역할 언급 등 최소한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구조적 차원에서 이번 회담이 미중 경쟁의 본질을 바꾸기는 어렵다. 현재 미중 갈등은 단순한 관세나 시장 접근 문제를 넘어 투자, 공급망, 첨단기술, 안보가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된 장기적 전략경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 통제나 대만해협 긴장 같은 문제는 정상 간 회담 한 번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수는 중동 상황으로, 이란 전쟁의 긴장이 관리된다면 경제·통상 중심의 협의가 가능하겠지만, 군사 충돌이 재격화될 경우 회담의 무게 중심은 안보 위기 관리로 급격히 이동할 수 있다.

결국 5월 베이징에서 마주 앉는 트럼프와 시진핑은 서로에게 최선의 파트너도, 완전한 적도 아닌 복합적 관계를 상징한다. 무역에서는 경쟁자이지만 기후변화와 핵 비확산에서는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대만 문제에서는 잠재적 충돌 가능성까지 안고 있는 이 관계는 단순한 협력이나 대립의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핵심은 '관계의 재설정'이 아니라 '갈등의 관리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있으며, 경쟁 속에서도 충돌과 공멸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과 소통 채널을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담의 결과는 관세 전쟁의 향방,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 대만해협 긴장 수위,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베이징에서 이루어질 두 정상과의 대화는 단순한 양자 외교가 아니라 국제질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담판이 될 전망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